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에 대한 연구: 신박물관학의 관점에서

오민주 University of Leicester, UK 박사과정생

I. 서론

II.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경험

- 기존 역사적 지식에 대한 강화
- 과거에 대한 상상 그리고 감정이입
- 새로운 역사적 내러티브와의 만남

III. 결론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에 대한 연구: 신박물관학의 관점에서

I. 서론

박물관과 문화유산은 방문객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장소이다. 하지만,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어떻게 관람객에게 감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관람객이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것과 반대로, 박물관 관람객의 감정적 참여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박물관학에서는 박물관에서의 관람객의 감정은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의 정책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특정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감정을 연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오기도 하였다.¹⁾ 즉, 기존의 박물관학에서의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 그리고 관람객의 감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기관의 문화와 정책 내에서 그것이 어떻게 규제되었는지 등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되어왔다.

이와 반대로 신박물관학은 박물관 안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박물관 관람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이해하며, 그러한 박물관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 발달하였다.

1) Bennett, Tony, 2013,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Hoboken: Taylor and Francis.

즉, 신박물관학은 Hooper-Greenhill²⁾이 박물관과 박물관 관람객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박물관 관람객은 더 이상 박물관이 제공하는 메시지를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과정 즉 ‘meaning-making process’에 참여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 그리고 박물관 관람에 대한 관람객의 참여는 더 이상 단순히 관람객이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을 배우고 박물관과 같은 기관의 의도대로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이 통제되고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박물관 관람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박물관 전시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³⁾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신박물관학의 발달 -박물관 관람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등장- 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박물관학에서는 여전히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동안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박물관의 전시 및 전시물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경험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⁴⁾ 이러한 학문적 배경 속에서 최근 신박물관학의 몇몇 학자들은 박물관 관람객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박물관의 전시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meaning-making process’에 참여하면서, 심지어 정서적 교감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박물관 관람객 정서를 활발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다.⁵⁾ 즉, 과거는 개인의 감정과 정서적으로 연관된 개인적 사건을 통해 이해되고 현재에 기억되기 때문에, 박물관 관람객은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를 다시 기억하며 박물관 안에서 정서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그리고 Smith and Campbell⁷⁾ 역시 박물관은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박물관 관람객은 전시회와 박물관, 문화유산을 개인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기억에 따라 박물관 그리고 문화유산을 개개인마다 다른 정서적 참여를 경험하며 다르게 경험한다

2) Hooper-Greenhill, E.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Routledge, 2000).

3) Hein, George E. *Learning in the Museum*. (Routledge, 1998). Hein, George E. (2006) 「Museum Education」, in Macdonald, Sharon, eds. *Companion to Museum Studies*. (Blackwell, 2008), pp. 340-352. Hooper-Greenhill, E. *The educational role of the museum*. (Routledge, 1998).

4) Schorch, P. 「Museum Encounters and Narrative Engagements」, in Witcomb, A. and Message, K.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s of Museum Studies: Museum Theory*. (John Wiley & Sons, Ltd. 2015) pp. 437-457.

5) Watson, S. 「Emotions in the history museum」, in Witcomb, A. and Message, K.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s of Museum Studies: Museum Theory*. (John Wiley & Sons, Ltd. 2015) pp. 283-301.

6) Watson, S. 앞의 책, 2015

7) Smith, L. and Campbell, G. 「The elephant in the room: Heritage, Affect and Emotion」, in Logan, W., Craith, M. N. and Kockel, U. eds. *A Companion to Heritage Studies*. (Wiley-Balckwell, 2015), pp. 443-460.

고 한다.⁸⁾ 따라서,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 그리고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관람할 때에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정서적 참여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박물관 관람객이 느끼는 감정, 즉 정서적 경험은 관람객의 사회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관람객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되고 교육되는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정서적 반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⁹⁾ 게다가,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동시에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깊게 연관되어 있다.¹⁰⁾ 사람의 감정 그리고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방법은 사회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집단 그리고 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인지체계와 연관되는 개개인의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집단적 그리고 개인적 구조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박물관 관람객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는 사회 및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개인적 경험 및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¹¹⁾

한편, 박물관 관람객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박물관 관람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적 참여는 박물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어떻게 박물관 관람객이 이해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박물관 관람객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지까지 영향을 미친다.¹²⁾ 다시 말해서 감정 그리고 정서적 참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과거를 통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이며,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 그리고 왜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¹³⁾ 따라서 박물관은 더 이상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박물관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교육적 기관이 아니라 공통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를 자극시킴으로써 전달하는 사회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의 박물관 관람 경험 그리고 관람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는 그동안 주로 박물관 실무자 그리고 박물관 기관의 관점에서 -앞서 언급되었듯이 주로 특정기관에 의해 어떻게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이 통제되고, 기관의 정책 등이 관람객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

8) Watson, S. (2017) 'The legacy of communism: difficult histories, emotions and contested nar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pp.1-14.

9) Watson, S. 'Why do Emotions Matter in Museums and Heritage Sites?' in Boxtel, C. V. et al. eds. Sensitive Pasts: Questioning heritage in Education. (Berghahn, 2016) pp. 75-91.

10) Watson, S. 앞의 책, 2015

11) Smith and Campbell, 앞의 책, 2015

12) Watson, S. 앞의 책, 2015

13) Smith and Campbell, 앞의 책, 2015

을 미칠 수 있는지 등- 주로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 그리고 관람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는 관람객의 자신만의 정서적 경험 그리고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떻게 박물관 관람객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박물관이 제시하는 특정한 정서적 참여를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정서적 경험으로 개별화하는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가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하는지에 대해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경험

박물관은 관람객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곳이다. 또한, 박물관은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을 통해 과거를 기억할 때 관람객에게 감정적 경험을 제공한다.¹⁴⁾ 따라서, 신박물관학 학자들은 최근에 어떻게 박물관 관람객이 정서적으로 참여하고 박물관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며, 이러한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은 관람객의 복잡한 감정들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주장한다.¹⁵⁾

즉, Smith와 Campbell에 따르면¹⁶⁾, 박물관 관람객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동안 그들의 정서적 경험과 지적 능력을 활용하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과거 그리고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박물관 관람객의 박물관과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은 관람객이 그들의 세계관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급진적인 통찰력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 관람객은 자신의 감정 및 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박물관과 교류하고 박물관을 경험하기 때문에, 관람객은 자신만의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박물관을 경험

14) Watson, S. 앞의 책, 2015

15) Smith, L. 「Affect and Registers of Engagement」 in Smith, L. et al. (eds.) Representing Enslavement and Abolition in Museum: Ambiguous Engagements. (Routledge, 2011), pp. 260-303.

Smith, L. et al. eds. Representing Enslavement and Abolition in Museum: Ambiguous Engagements. (Routledge, 2011).

Watson, S. 「The legacy of communism: difficult histories, emotions and contested nar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017, pp. 1-14.

Witcomb, A. 「Interactivity: Thinking Beyond」, in Macdonald, S. (eds.)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 (John Wiley & Sons, 2011), pp. 353-361.

Witcomb, A. 「Toward a Pedagogy of Feeling: Understanding How Museums Create a Space for Cross-Cultural Encounters」 in Witcomb, A. and Message, K.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s of Museum Studies: Museum Theory. (John Wiley & Sons, Ltd. 2015), pp. 321-344.

16) Smith and Campbell, 앞의 책, 2015

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박물관 관람객이 어떻게 박물관 관람에 있어 정서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는지 Smith¹⁷⁾가 연구한 ‘emotional register’ 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emotional register’는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Smith¹⁸⁾가 정의한 개념이다. 박물관학의 기존 연구는 박물관은 박물관 관람객이 과거의 의미 그리고 역사적 지식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교육적 기관이라고 정의되었다. 그러나 Smith¹⁹⁾는 박물관은 더 이상 박물관 관람객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관람객이 문화와 정치적 가치를 새롭게 습득하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적 내러티브를 재정의하거나 새롭게 이해하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박물관 관람객의 문화적 및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물관 관람객이 어떠한 정서적 참여를 경험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emotional register’라는 개념이 활용되었다.

1. 기존 역사적 지식에 대한 강화

Smith, Cubitt, Fouseki, and Wilson²⁰⁾은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경험할 때에,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존의 생각과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Smith²¹⁾와 Smith, Cubitt, Fouseki, and Wilson²²⁾의 연구에 따르면, 박물관 관람객은 자신의 생각이나 기존의 존재하는 합의된 역사적 이야기와 다른 어려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유지하고자 하며, 그것을 강화시킴으로써 편안한 정서적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박물관 관람객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동안 그들의

17) Smith, L. ‘Visitor Emotion, Affect and Registers of Engagement at Museums and Heritage Sites’, 『Conservation Science in Cultural Heritage』, 2014, 14(2), pp.125-132.

Smith, L. ‘Changing views? Emotional intelligence, registers of engagement and the museum visit’, 『Museums as Site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Perspectives on Museum Theory and Practice in Canada』, 2016, pp.101-121.

18) Smith, L. 앞의 논문, 2014; Smith, L. 앞의 책, 2016

19) Smith, L. 앞의 논문, 2014

20) Smith, L., Cubitt, G., Fouseki, K. and Wilson, R. (eds.) (2011) Representing enslavement and abolition in museums: Ambiguous engagements. Routledge.

21) Smith, L. 앞의 책, 2016

22) Smith, L., Cubitt, G., Fouseki, K. and Wilson, R. (eds.), 앞의 책, 2011

자아,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표현할 기회를 갖는다. 그 관람객들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과정은 그들이 기존에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들의 이야기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과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과정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과정과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물관 관람객은 과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신의 감정적인 경험 등을 투자하고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박물관 관람 과정 속에서 만난 역사적 서술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의 지식이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물관 관람 과정에 있어서의 정서적 경험은 관람객의 정체성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배적인 역사적 이야기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Watson이 인용한 Fischer와 Mansted의 연구에서는²³⁾ 관람객이 박물관 및 문화 유산을 방문함으로써 기존에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통용된 이야기와 정체성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연구되었다. 그들은 세계 2차 대전의 역사를 다루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박물관에 방문한 학생들을 연구하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그 속에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그 곳을 방문한 많은 학생들이 세계 2차 대전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존에 배웠던, 세계 2차 대전의 이야기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강화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이 사례연구에서 논의되고 검토된 바와 같이, 박물관 관람객은 박물관을 관람하고 경험할 때, 그리고 특히 특정한 역사적 내러티브가 관람객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고 기존의 내러티브와 다른 관점을 제공할 때에, 그들 자신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오히려 관람객들은 그들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 자신의 관점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2. 과거에 대한 상상 그리고 감정이입

박물관 관람객의 감정 그리고 그들의 정서적 참여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대표적으로 과거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감정이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mith²⁴⁾에 따르면, 과거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단순히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전시를 경험함으로써 과거에 대해 슬픔 또는 동정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관람객이 스스로를 과거의 역

23) Watson, 앞의 책, 2017

24) Smith, L. 앞의 책, 2016

사적 사실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역사적 내러티브를 현재로 가져옴으로써, 역사적 내러티브를 창의적으로 상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와 비슷하게 또는 반대로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만들어내 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이입의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관람객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극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역사적 내러티브 사이에서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도와주는 충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²⁵⁾ 즉, Smith²⁶⁾는 박물관을 “기억의 극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을 관람할 때 역사적 내러티브에 대한 호기심과 그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박물관 관람객이 감정이입이라는 정서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Ravenscroft²⁷⁾는 상상력, 감정이입, 윤리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윤리는 인간이 다른 이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다른 이의 감정을 상상력을 바탕으로 연결시킬 때, 즉 감정이입이 일어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인간은 공감하는 능력, 즉 다른 이에게 감정이입하는 감정적 반응과 상상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고려할 때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지적 사고 체계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박물관은 박물관 관람객의 윤리적 책임과 박물관에서의 그들의 감정적 참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Smith²⁸⁾가 주장했듯이, 박물관이 단순히 역사적 유물이나 역사적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박물관 관람객들이 역사적 내러티브에 공감하고 감정이입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인 것이다. 또한, Smith and Campbell²⁹⁾은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 관람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의 도덕적 가치관까지 평가하고 그들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박물관은 사회적 기관으로서 이러한 박물관 관람객의 상상력 그리고 감정이입이라는 정서적 참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박물관 관람객의 이러한 정서적 참여가 자극되어야 박물관 관람객 스

25) Smith and Campbell, 앞의 책, 2015; Smith, L. 앞의 책, 2016; Savenije, G. M. and Bruijn, P. D. 「History Empathy in a museum: Uniting contextualisation and emotional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017, 23(9), pp. 832-845; Ravenscroft, A. 「Dialogue and connectivism: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promoting dialogue-rich networked learning」,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2011, 12(3), pp. 139-160.

26) Smith, L. 앞의 책, 2016, p. 15

27) Ravenscroft, 앞의 논문, 2011, p. 72

28) Smith, L. 앞의 책, 2016

29) Smith and Campbell, 앞의 책, 2015, p. 15

스로 자신의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가치관을 반성하고 재정립함으로써 의미 있는 박물관 관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3. 새로운 역사적 내러티브와의 만남

이러한 관람객의 감정이입이라는 정서적 참여는 또한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역사적 내러티브 그리고 다른 박물관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내러티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변혁적 순간의 경험을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역사적 내러티브를 받아들이는 박물관 관람객의 변혁적 순간은 박물관 관람객들의 깊은 정서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박물관 관람객의 감정이입의 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내러티브가 변화하는 이러한 박물관 관람객의 변혁적 순간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내러티브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의 정서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mith³²⁾는 이러한 변혁적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 관람을 통해 새로 마주한 역사적 내러티브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그러한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적 반응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박물관 관람객의 충분한 비판적 사고능력 그리고 잘 정립된 정서 및 지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관람객이 경험하지는 못한다. 그 결과, 박물관 관람객의 이러한 변혁적인 순간과 같은 정서적 참여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를 더 깊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변혁적 순간까지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0) Savenije, G. M. and Bruijn, P. D. 앞의 논문, 2017

31) Smith, L. 앞의 책, 2016

32) Smith, L. 앞의 책, 2016

III. 결론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박물관 관람객의 박물관 관람에서의 정서적 경험은 관람객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과 연관이 있다. 박물관 관람객은 박물관을 방문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지식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판단을 강화할 수 있고, 과거의 역사적 내러티브에 감정이입을 하며, 자신 스스로를 과거와 연결시키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 관람객은 기존의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들이 알고 있던 역사적 내러티브와 다른 관점의 새로운 역사적 내러티브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변혁적 순간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tson³³⁾은 사람들의 감정이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감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그룹, 공동체, 사회로부터 배우는 도덕적, 인지적 사고체계와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Smith and Campbell³⁴⁾ 또한 인간의 감정이 우리가 경험하는 제도적이고 사회적임과 동시에 개인적인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따라서 박물관 관람객의 감정, 즉 박물관을 방문하는 동안 느끼는 관람객들의 정서적 참여는 관람객 스스로의 경험의 산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규제되고 학습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관람객의 개인적 요인 외의 외부 요인에 의한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의 통제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경험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 및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고 또한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도 주로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과 관리 방법을 고려하는 등의 박물관 기관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을 관람함으로써 사회 및 문화적 영향 하에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참여하고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특히, 박물관 관람객이 특정한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는 difficult history의 경우에 박물관 관람객들은 자신의 관점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박물관에 전시된 difficult history의 내러티브가 관람객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이

33) Watson, S. 앞의 논문, 2017

34) Smith and Campbell, 앞의 책, 2015

끌어낼 때에는 박물관 관람객이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 그리고 가치관을 익히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기존의 가치관 그리고 관점을 강화하기 쉽다. 또한 이러한 difficult history의 경우 박물관 관람객에게 감정이입의 순간 그리고 공감적인 반응을 고무시키기에 좋은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관람객들이 이러한 difficult history가 전시된 경우,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관람의 과정 속으로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가치관을 이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difficult history를 전시하는 박물관에서의 박물관 관람객의 감정을 연구할 때에는 관람객들이 겪을 수 있는 변혁적인 순간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 Smith³⁶⁾에 따르면, 박물관 관람객은 difficult history가 전시된 박물관을 관람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과 자신의 기존 지식을 섞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과 문화적 및 사회적 가치관을 창조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더욱이 일제 강점기와 같은 가슴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에 박물관 관람객의 감정 그리고 정서적 참여에 대해 연구할 때에 이러한 difficult history가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박물관 관람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difficult history와 연관된 가치관이나 역사적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결과 이 글의 집필자의 이어질 연구는 최근 박물관학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한국 박물관의 상황에서 이해하기 위해 한국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 연구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다. 특히,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 관람을 통해 일제 강점기와 같은 가슴 아픈 역사(difficult history)와 어떻게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그 것에 참여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러한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박물관 관람객이 박물관의 전시 의도 즉, 박물관이 의도하는 관람객의 정서적 경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 안에서 개인적 경험 및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정서적 참여를 경험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박물관 관람객들의 정서적 참여가 일어나는 박물관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박물관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35) Watson, S. 앞의 책, 2015

36) Smith, L. 앞의 책, 2016

〈참고문헌〉

- Bennett, Tony, 2013,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Hoboken: Taylor and Francis.
- Hein, George E. (1998) *Learning in the Museum*. Routledge.
- Hein, George E. (2006) 'Museum Education', in Macdonald, Sharon (eds.) *Companion to Museum Studies* 2008. Blackwell, pp. 340-352.
- Hooper-Greenhill, E. (1999) *The educational role of the museum*. Routledge.
- Hooper-Greenhill, E. (2000)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Routledge.
- Hooper-Greenhill, E. (2006) 'Studying Visitors', in Macdonald, Sharon (eds.) *Companion to Museum Studies*. Blackwell, pp. 362-376.
- Ravenscroft, A. (2011). 'Dialogue and connectivism: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promoting dialogue-rich networked learning',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12(3), pp. 139-160.
- Savenije, G. M. and Bruijn, P. D. (2017) 'History Empathy in a museum: Uniting contextualisation and emotional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3(9), pp. 832-845.
- Smith, L. (2011) 'Affect and Registers of Engagement' in Smith, L. et al. (eds.) *Representing Enslavement and Abolition in Museum: Ambiguous Engagements* 2011. Routledge, pp. 260-303.
- Smith, L. et al. (eds.) (2011) *Representing Enslavement and Abolition in Museum: Ambiguous Engagements*. Routledge.
- Smith, L. (2014) *Visitor Emotion, Affect and Registers of Engagement at Museums and Heritage Sites*. *Conservation Science in Cultural Heritage*, 14(2), pp.125-132.
- Smith, L. and Campbell, G. (2015) 'The elephant in the room: Heritage, Affect and Emotion' in Logan, W., Craith, M. N. and Kockel, U. (eds.) *A Companion to Heritage Studies* 2015. Wiley-Balckwell, pp. 443-460.
- Smith, L. (2016) *Changing views? Emotional intelligence, registers of engagement and the museum visit*. *Museums as Site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Perspectives on Museum Theory and Practice in Canada*, pp.101-121.
- Watson, S. (2015) 'Emotions in the history museum' in Witcomb, A. and Message, K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s of Museum Studies: Museum Theory* 2015. John Wiley & Sons, Ltd. pp. 283-301.

- Watson, S. (2016) 'Why do Emotions Matter in Museums and Heritage Sites?' in Boxtel, C. V. et al. (eds.) *Sensitive Pasts: Questioning heritage in Education* 2016. Berghahn, pp. 75-91.
- Watson, S. (2017) 'The legacy of communism: difficult histories, emotions and contested nar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pp. 1-14.
- Wellington, J. and Szczerbinski, M. (2007)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A&C Black.
- Witcomb, A. (2005) 'Interactivity: Thinking Beyond', in Macdonald, S. (eds.)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 2011. John Wiley & Sons, pp. 353-361.
- Witcomb, A. (2015) 'Toward a Pedagogy of Feeling: Understanding How Museums Create a Space for Cross-Cultural Encounters' in Witcomb, A. and Message, K.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s of Museum Studies: Museum Theory*. John Wiley & Sons, Ltd. pp. 321-344.

Abstract

Study of Visitors' Emotional Engagement at Museums-From the Perspective of New Museology

Minju Oh

PhD Candidate, University of Leicester, UK

New museology provides an innovative paradigm for understanding the active role of visitors in their communication with museums. It has roots in Eilean Hooper-Greenhill's efforts to stress the need for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visitors and museums. Reconceptualizing their relationship, Hooper-Greenhill (2000) asserted that visitors should engage in meaning-making processes at museums. Visitor engagement is more than just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or gaining knowledge about museums while appreciating their exhibitions: it means creating meaning for exhibitions and items by engaging with museums on an entirely different level (Silverman, 1995; Hooper-Greenhill, 1999; Hein, 1998, 2006). Recent museum studies on visitors' perceptions point out that visitors can experience emotional engagement at museums by contributing their own memories based on personal background to the process of meaning-making (Kavanagh, 2000 cited in Watson, 2015). Such engagement is possible as they recall the past through museums (Watson, 2015) since as Sheila Watson put it, "the past is accorded an emotional register and the present is understood through feelings associated with events and individuals long ago" (Watson, 2015, p.75). Laurajane Smith and Gary Campbell (2015, p. 445) also said that "museums are places where people go to feel." In view of the above,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visitors emotionally engage with museums and historical narr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for emotional registers suggested by Smith (2016).

Keywords: Museum Education, Emotional engagement of museum visitors, Difficult history, Social role of museum, New museology